

■ 연구원 소식

신규 회원이 연구원을 찾아주셨습니다.

2021년 겨울을 앞두고 우리 연구원 민정익 회원의 추천으로 세 분의 새로운 회원이 연구원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새롭게 연구원 가족이 되신 세 분을 소개드립니다.

박재숙 회원은 2005년 고창으로 귀농해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재배하며 2009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재배, 가공, 판매, 유통,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전라북도 대표 강소농 기업으로 성장시킨 분입니다.

조익래 회원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화산업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송주환 회원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연구원 가족이 된 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시기를 마감하고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될 연구원의 다양한 사업의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세 분의 새로운 가족을 환영합니다.

온다라 교양플라자 수강생 모집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교양 플라자가 대면 비대면 강좌로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또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 센터(063-220-3203)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강의 주제는?

[1부] 국내 학자 초청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1	11월 4일(목)	16:00	조선시대 사람들의 최애편 '담배'	장순순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2	11월 11일(목)	~	항일운동을 도운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磯谷季次)	변은진 (전주대학교 HK교수)
3	11월 18일(목)	18:00	소설과 영화 사이, 장아이링의 「색·계」	김명희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4	11월 25일(목)	(2시간)	눈이 즐거운 지역 이야기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부] 국외 학자 초청

* 국외 학자 오프라인 강의는 **이원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시	일자	시간	주제	강사
5	12월 2일(목)	16:00	황해도 연안군 지역의 농민과 저수지 이야기	홍창국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日本一橋大學)
6	12월 10일(금)	18:00	일제강점기 조선교회의 자치와 자립 -최중진(崔重珍)의 자유교회와 그 주변	배귀득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日本立命館大學)
7	12월 16일(목)	10: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8	12월 23일(목)	12:30	구별된 사람들: 조선 사회 속의 천주교 신자 II	드버니아 토레이 (Debernere J. Torrey, University of Utah)

[랜선 체험]



with. 꿈드림원예힐링센터

원예를 활용한 마음의 힐링 찾기
스칸디아모스 원목액자 만들기

* 체험 관련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 1987. 11. 21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진정한 선진국가로 발돋움이라는 화두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소득수준의 상승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치·문화·사회적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다다랐다.

선진 일류 국가를 지향한다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에 대한 민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이는 우리가 쫓는 선진국의 의사들에 비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두드러진 대한의사협회의 행위는 철저히 이익단체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의사들에 대한 기억이다. 이익단체가 아닌 민인과 함께하는 전문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바라는 그 의사들 말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회오리가 숨을 고르고 있던 그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자리한 예장 여전도회관에 일군의 의사들이 모여들었다. 강당을 메운 100여명의 의사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의 고귀함에 한마음을 모은다는 감동에 가득 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실협) 창립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인의협이라는 줄임말이 더 익숙하지만 지금까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인실협"라는 조직 명칭이 더 익숙하다. "의사"라는 사회적 명칭보다 "실천"이라는 행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실협은 6월 항쟁과 그에 이은 노동자 투쟁이 벌어진 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 민중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한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을 목적에 밝히고 있다.

인실협은 창립 이후 노동자 건강권 문제, 의문사·국가 폭력 진상규명과 같은 민주주의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일원화·의약분업과 같은 의료 제도 문제, 공공의료·보장성 강화·의료 민영화 저지와 같은 국민 건강권 문제에 천착했다.

뿐만 아니라 반핵·반전평화, 미군기지·사드기지, 노숙인 진료·북한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운동 등등 의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개입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자신이 서 있는 사회의 건강을 고민하는 것은 의사의 사명임에도 방관의 편리함과 달콤함에 젖어든 이들이 더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잖은 의사들이 시대와 사회의 아픔에 함께 하지 못한 불편함을 함께 넘어서기 위해 인실협과 함께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은 의사들의 실천적 행위만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보건의료인들과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역사의 주체인 민인의 힘이 더해질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인실협의 모든 실천적 행위 역시 연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지난 34년간 인실협의 걸어온 발자취는 우리 현대사에 다름 아니다. 1988년 열 일곱살의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쓰러진 문송면부터 2021년 역시 열일곱의 나이에 현장 실습 도중 세상을 떠난 홍정운에 이르기 까지 여전히 그림자 속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퇴행적 과거에 머무르고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된 어두운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일탈적 과거와 결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지난 시기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만들고 있는 인실협 역시 이 전환의 시기에 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987년 창립 당시 고문으로 위촉되어 인실협의 산파 역할을 자임하고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서울대 의대 홍장의 명예교수는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병만 고치는 소의(小醫)보다 사회를 고치는 대의(大醫)가 되어 달라”라고 후학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1987년 오늘,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한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목소리를 낸 의사들의 깃발이 올랐다.